

CONDUCTOR
ANDRÉS OROZCO-ESTRADA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KBS

S.O.

814th

VIOLIN
LEILA JOSEFOWICZ

바이올린 레일라 요세포비치

KBS교향악단
제814회 정기연주회

2025.5.22. Thu 20:00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25.5.23. Fri 20:00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

KBS S.O. 814th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주세요.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주세요.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Program

베를리오즈 H. Berlioz	로마의 사육제 서곡, 작품 9, H.95 Le Carnaval Romain Overture, Op.9, H.95	⌚ 8'
스트라빈스키 I. Stravin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K053 Violin Concerto in D Major, K053	⌚ 22'
	I. Toccata – Presto 토카타 – 빠르게 (6')	
	II. Aria I – Moderato 아리아 I – 보통 빠르게 (5')	
	III. Aria II – Andante 아리아 II – 느리게 (5')	
	IV. Capriccio – Allegro capriccioso ma non troppo 카프리치오 – 활기차고 번덕스럽게, 그러나 지나치지 않게 (6')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슈트라우스 R. Strauss	돈 후안, 작품 20, TrV 156 Don Juan, Op.20, TrV 156	⌚ 18'
슈트라우스 R. Strauss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 59, TrV 227d Der Rosenkavalier Suite, Op.59, TrV 227d	⌚ 22'

※ 상기 프로그램 및 출연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DUCTOR
ANDRÉS OROZCO-ESTRADA

지휘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

에너지, 우아함, 열정.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를 다른 음악가와 구별 짓는 특징이다. 2022년 5월 이탈리아 국립 방송 교향악단과 함께한 탁월한 연주 이후,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2023/24 시즌 신임 상임지휘자로 임명되었으며, 10월 24일에는 악단의 30주년을 기념하며 토리노에서 열린 페스티벌 공연을 두 차례 지휘했다.

2025/26 시즌부터는 쾰른시 총괄 음악감독과 쾰른 귀르체니히 관현악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한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쾰른 시민에게 음악을 통해 영감을 주고, 쾰른시를 세계에 음악의 도시로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 시즌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카르멘>을 통해 음악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오페라를 지휘하게 된다.

2024/25 시즌에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피가로의 결혼>으로 드레스덴 젬퍼 오페라하우스에서 첫 무대를 가졌다. 이후 그는 도쿄에서 NHK 교향악단, 서울에서 KBS교향악단,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국립 관현악단과 첫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시카고 교향악단, 드레스덴 슈타츠키펠레, 프랑스 국립 관현악단,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밤베르크 교향악단,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뮌헨 필하모닉 및 남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서부독일 방송 교향악단 및 베를린 도이치 교향악단과 무대를 가졌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2014~2021년 수석지휘자 재임)과 휴스턴 심포니(2014~2022년 음악감독 재임)와도 계속해서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태어난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바이올린으로 처음 음악을 배웠으며, 15세의 나이에 첫 지휘 수업을 받았다. 1997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주해 명문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전설적 지휘자 한스 스바로프스키의 제자인 우로쉬 라이요비츠에게 지휘를 배웠다.

오로스코-에스트라다는 2022년 10월부터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VIOLIN LEILA JOSEFOWICZ

바이올린 레일라 요세포비치



레일라 요세포비치는 다양하고 새로운 작품을 즐겨 연주하며 현대 바이올린 작품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연주자이다. 현존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는 요세포비치는 콜린 매튜스, 루카 프란체스코니, 존 애덤스, 에사 페카 살로넨 등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협주곡을 포함해 많은 바이올린 협주곡을 초연했다.

2024/25 시즌 수잔나 말키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과 함께 루카 프란체스코니의 <Duende – The Dark Notes>를 연주하고, 사카리 오라모가 지휘하는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올드버러 페스티벌에서 헬렌 그라임의 바이올린 협주곡의 영국 초연 무대를 올릴 예정이다. 그 외에도 미네소타 관현악단,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굴베키안 관현악단, 휴스턴 심포니, 샌디에이고 심포니, KBS교향악단, 싱가포르 심포니, 버밍엄 심포니, 프라하 심포니, BBC 심포니 등과의 연주가 예정되어 있다. 최근 시즌의 주요 공연으로는 베를린 필하모닉,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로열 콘서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오슬로 필하모닉, 헬싱키 필하모닉, LA 필하모닉, 북독일 방송 엘브필하모니, 시카고 교향악단,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으며, 파보 예르비, 마티아스 핀처, 윤 스토르고르, 크리스티안 마첼라루, 토마스 쇠너고르, 에사 페카 살로넨, 달리아 스타세브스카, 한누 린투, 존 애덤스 등 정상급 지휘자와 함께 연주했다.

요세포비치는 작곡가 고(故) 올리버 크누센과 긴밀한 음악적 관계를 유지하며 <바이올린 협주곡> 등 다양한 협주곡을 30회 이상 함께 연주했다. 이 외에도 마티아스 핀처의 <Assonanza>를 신시네티 교향악단과, 존 애덤스의 <세헤라자드.2>를 뉴욕 필하모닉과, 루카 프란체스코니의 <Duende – The Dark Notes>를 스웨덴 방송 교향악단과, 스티븐 맥키의 <Beautiful Passing>을 BBC 필하모닉과 초연한 바 있다. 또한 1985년부터 긴밀히 협업해 온 존 노바체크와 함께 뉴욕의 잔켈 홀과 파크 애비뉴 아모리, 워싱턴 DC의 케네디 센터와 미국 의회도서관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이름난 무대에서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으며, 레이카비크와 트렌토, 빌바오, 시카고에서도 연주했다. 두 아티스트의 협업은 이번 시즌 런던의 위그모어 홀을 재방문해 초연하는 샬트 브레이의 새로운 위촉작 <Mriya>의 무대로 계속된다. 2024/25 시즌의 다른 실내악 협업으로는 알렉sey 타르타코프스키와 함께하는 뉴포트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무대가 있으며, 폴 왓킨스와는 그레이트 레이크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Great Lakes Chamber Music Festival)과 산타 페 체임버 뮤직 페스티벌(Santa Fe Chamber Music Festival) 및 노스웨스트 체임버 뮤직(Chamber Music Northwest)에서 손 셰퍼드의 새로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작품을 초연할 예정이다.

레일라 요세포비치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필립스/유니버설, 워너클래식을 비롯해 여러 레이블에서 음반을 발매하며 활발히 녹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음반들은 Touch Press의 호평을 받은 아이폰 앱 ‘The Orchetra’에 소개되며 대중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요세포비치의 최신앨범은 2019년에 한누 린투의 지휘로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과 연주한 베르트 알로이스 치머만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이다. 이전에도 데이비드 로버트슨이 지휘하는 세인트루이스 심포니와 함께 녹음한 <세헤라자드.2>, 그리고 작곡가가 직접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을 지휘한 에사 페카 살로넨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으로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오른 바 있다. 탁월한 음악적 업적과 우수함을 인정받아 2018년 에이버리 피셔 상을 수상하였고, 2008년에는 권위 있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해 현대사회에 특별한 기여를 한 저명한 과학자, 작가, 음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베를리오즈 H. Berlioz	로마의 사육제 서곡, 작품 9, H.95 Le Carnaval Romain Overture, Op.9, H.95
작곡연도	1843년~1844년
초연	1844년 2월 3일, 프랑스 파리
편성	플루트 2(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잉글리시 호른을 겸함), 클라리넷 2, 바순 2, 호른 4, 트럼펫 2, 코넷 2,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팀파니, 탬버린 2, 심벌즈, 트라이앵글, 현 5부
연주 시간	약 8분

베를리오즈는 자신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가 실패하자 깊은 낙심에 빠졌다. 이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쏟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자신의 예술적 야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기대와 달리 관객과 평단의 반응은 냉담했고, 오페라는 흥행에 참패했다. 이처럼 공들여 만든 작품이 잊힐 위기에 처하자, 베를리오즈는 작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작품을 개작하며 더욱 정교하게 다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한 음악이 바로 로마의 사육제 서곡이다.

로마의 사육제는 원래 오페라 2막이 시작되기 전 연주되는 서곡이며, 베를리오즈 특유의 생동감 넘치는 오케스트레이션으로 가득한 음악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서곡은 축제 분위기를 강렬하게 표현하며 듣는 이들에게 마치 로마의 축제에 직접 서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곡의 도입부는 빠르고 격렬한 음악으로 시작되고, 이어서 오페라의 주요 인물인 벤베누토 첼리니와 그의 연인 테레사가 부르는 듀엣이 서정적으로 변주된다. 이때 잉글리시 호른이 주선율을 담당하며 사랑스러운 멜로디를 만든다. 나아가 베를리오즈는 화려한 음악을 연출하는 동시에, 구석구석 섬세한 음악으로 사육제 곳곳을 실감 나게 비춘다. 이 서곡을 통해 오케스트라 음악이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한 것이다. 특히 리듬을 활용해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방법은 작품의 생기를 더한다.

비록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는 초연의 실패로 인해 그 빛을 보지 못했지만, ‘로마의 사육제’ 서곡은 이후 독립된 오케스트라 작품으로 자리 잡으며, 베를리오즈의 가장 유명한 오케스트라 작품이 되었다. 오늘날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그날 콘서트의 첫 곡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고 있다.

스트라빈스키 I. Stravinsky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K053 Violin Concerto in D Major, K053
작곡연도	1931년
초연	1931년 10월 23일, 독일 베를린
편성	독주 바이올린, 플루트 3(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잉글리쉬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3(콘트라바순을 겸함),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 베이스 드럼, 현 5부
연주 시간	약 22분

스트라빈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1931년에 작곡되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출세작 ‘불새(1910)’, ‘봄의 제전(1913)’ 등이 작곡되던 시기와는 한참 떨어져 있고, 작곡 스타일도 다르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예술가들은 더욱 객관적이고 명료한 표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과거의 형식까지 참고했는데, 스트라빈스키 역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며, 훗날 ‘신고전주의’라고 불리게 된 스타일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러한 새로운 음악적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작곡에 영감을 준 건 바이올리니스트 사무엘 더쉬킨(1891-1976)이었다. 스트라빈스키는 더쉬킨의 뛰어난 연주력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를 위해 멋진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하고자 마음먹기까지 했다. 하지만 걱정도 앞섰다. 스트라빈스키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지만, 바이올린엔 서툴렀기 때문이다. 스트라빈스키는 더쉬킨에게 끊임없이 의견을 구하며 작곡을 이어 나갔다.

작곡과정 중 있었던 ‘passport chord’ 일화가 유명하다. 스트라빈스키는 더쉬킨과 점심식사 중, 한 개의 화음이 적혀있는 종이를 슬쩍 꺼냈다. 이 화음을 바이올린 연주자가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화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E음에서 높은 A음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간격의 화음이었다. 더쉬킨은 단칼에 연주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런 화음은 태어나서 본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화음이었기 때문이다. 내심 마음이 쓰였던 더쉬킨은 집에 돌아와 이 화음을 시도해 보기 시작했고, 이내 불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바로 스트라빈스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이 화음은 각 악장을 여는 역할로 사용되게 된다. 코드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트라빈스키는 이 코드를 ‘passport chord’로 불렀다.

I. Toccata – Presto	
힘찬 코드와 함께 1악장이 시작된다. 트럼펫이 경쾌한 연주를 시작하고, 이후 이 주제는 바이올린 독주자에게 넘어가며 새롭게 모습을 바꾼다. 음악은 반복과 발전 그리고 회귀로 이어지는데, 스트라빈스키 영감의 원천이 바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악장을 ‘토카타’라고 붙인 것도 그 이유다.	
II. Aria I – Moderato	
마찬가지로 ‘passport chord’가 사용되며 ‘아리아 I’이 시작된다. 바로크 시대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장식음들이 돋보이고, 곳곳에서 스트라빈스키가 던지는 유머를 관찰할 수 있다.	
III. Aria II – Andante	
한층 진지한 분위기로 ‘아리아 II’가 이어진다. 독주 바이올린의 서정적인 주제가 펼쳐지며, 오케스트라 음악보다는 한편의 실내악처럼 다가온다.	
IV. Capriccio – Allegro capriccioso ma non troppo	
마지막 악장인 ‘카프리치오’는 다시 유쾌한 분위기로 돌아온다. 어딘가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BWV 1043)’이 들려오는 듯하며, 점점 속도를 높여 피날레에 진입하면서 작품은 힘차게 마무리된다.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스트라빈스키는 자신이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라는 점을 늘 걱정했다. 어느 날 스트라빈스키는 가까운 동료인 파울 힌데미트(1895-1963)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줄 모르는 게 이 작품을 작곡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요?’ 힌데미트는 반문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올린 협주곡은 관습적인 테크닉에서 벗어나, 아무도 떠올리지 못했을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작품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힌데미트의 말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작품은 1931년 베를린에서 초연되고, 스트라빈스키만의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남게 된다.	

슈트라우스 R. Strauss	돈 후안, 작품 20, TrV 156 Don Juan, Op.20, TrV 156
작곡연도	1887년-1888년
초연	1889년 11월 11일, 독일 바이마르
편성	플루트 3(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2,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즈, 트라이앵글, 글로켄슈필, 하프, 현 5부
연주 시간	약 18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작곡 방식과 멀어지기 시작한다. 이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더이상 바이올린 소나타나 피아노 소나타 같은 고전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 교향시처럼 더욱 자유로운 양식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시작이 바로 교향시 ‘돈 후안’이다. 이제 막 20대 중반에 진입한 젊은 작곡가의 대담한 시도였다. 이후 교향시 ‘맥베스’, ‘죽음과 변용’ 등이 탄생하며 본격적으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돈 후안은 14세기 무렵 스페인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진 바람둥이다. 기이한 행적과 독특한 아우라로 수많은 작품들의 소재가 되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가 우리에게 친숙하다. 돈 후안은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성격으로 묘사되었는데, 슈트라우스는 독일의 시인 니콜라우스 레나우(1802-1850)가 표현한 돈 후안에 영감을 받아 교향시 ‘돈 후안’을 작곡했다. 레나우는 돈 후안의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낭만적인 캐릭터로 묘사했다. 물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개인사도 ‘돈 후안’ 작곡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시기 슈트라우스는 사랑으로 지독한 열병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한 여성을 사랑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중에 그의 아내가 될 소프라노 파울리네를 만난 시기이기도 하다.	
작품은 돈 후안의 열망을 반영하듯 화려하고 격렬하게 시작된다. 바그너에 영향을 받았던 압도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이 등장하며, 돈 후안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마치 최초의 출판 악보에 실린 구절을 대변하는 듯하다. ‘마지막 여인에게 입 맞춘 뒤 난 바로 죽어도 좋으리라’	
이후 돈 후안은 수많은 여성들을 유혹하며 모험을 떠난다. 돈 후안이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낄수록 음악도 더욱 깊어지고, 서정적으로 변한다. 이처럼 음악은 사랑의 순간들을 다양하게 노래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악장의 독주로 돈 후안이 다가가고 싶어 하는 여성을 묘사하는 대목이 있다. 목관으로 표현되는 상대방의 반응도 흥미롭고, 호른과 듀엣을 이루며 둘만의 사랑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등장한다. 악장의 독주는 슈트라우스가 ‘영웅의 생애’에서 자신의 반려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던 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돈 후안의 방향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의 열정은 사그라들며 작품이 쓸쓸하게 마무리된다. 레나우 ‘돈 후안’의 마지막 구절을 닮았다. ‘모든 욕망과 희망이 멈춘 듯하다. 나는 천벌을 받아 열정을 잃었고, 내 세상은 황량하고 어두워졌다.’	

슈트라우스 R. Strauss	장미의 기사 모음곡, 작품 59, TrV 227d Der Rosenkavalier Suite, Op.59, TrV 227d
작곡연도	원작 오페라 장미의 기사(1909~1910년 작곡), 모음곡 편곡(1944년)
초연	1944년 10월 13일, 미국 뉴욕
편성	플루트 3(피콜로를 겸함), 오보에 2,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E♭클라리넷을 겸함), 베이스 클라리넷, 바순 2, 콘트라바순, 호른 4, 트럼펫 3, 트롬본 2, 베이스 트롬본, 튜바, 팀파니, 심벌즈, 큰북, 작은북, 트라이앵글, 탬버린, 글로켄슈필, 라철티, 하프 2, 첼레스타, 현 5부
연주 시간	약 22분

오페라 ‘장미의 기사’는 18세기 빈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대본가 휴고 폰 호프만슈탈(1874-1929)과 함께 한 최고의 걸작 중 하나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작품을 작곡하던 20세기엔 빈의 황금기가 저물어 가는 시기였고, 슈트라우스는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기 위해 ‘장미의 기사’를 만들기 시작했다. 특히 빈 문화의 품격과 위대함을 표현하기에 왈츠만 한 요소가 없었다. 물론 왈츠는 ‘장미의 기사’의 배경인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에 이르러 더욱 번성했지만, 슈트라우스는 빈의 우아함을 표현하는데 왈츠가 빠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1911년 ‘장미의 기사’는 드레스덴에서 초연되었고,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당시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보기 위해 빈에서 드레스덴으로 이동하는 특별열차까지 편성될 정도였다. 이후 슈트라우스는 콘서트 무대에서도 ‘장미의 기사’를 연주할 수 있도록 모음곡 버전도 출판하게 된다.

첫 장면은 오페라와 마찬가지로 웅장한 호른과 이어지는 눈부신 현악기 소리로 시작된다. 후작부인 마르살린과 그녀의 젊은 연인인 옥타비안이 몰래 사랑을 속삭이고 난 직후다. 한편 마르살린의 친척 옥스 남작은 조피와의 결혼을 계획한다. 그는 결혼 전 예물을 전달할 ‘장미의 기사’로 옥타비안을 추천받는다.

이어지는 음악은 2막에서 장미 헌정식이 열리는 장면이다. 옥타비안이 옥스 남작을 대신해 조피에게 은장미를 전달한다. 슈트라우스는 이 순간 바이올린, 플루트, 하프 그리고 첼레스타를 이용해 은장미가 반짝이는 장면까지 표현한다. 슈트라우스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음악으로 옮길 수 있는 작곡가였다. 여기서 옥타비안은 뜻밖에도 조피에 한눈에 반하고, 이 둘은 사랑에 빠지며 사랑스러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이후 두 사람의 사랑이 들킬 듯 말 듯 불안한 음악이 지나가면, 오페라 ‘장미의 기사’를 대표하는 왈츠가 슬쩍 고개를 내밀며 등장한다. 들떠 있는 옥스 남작의 왈츠다. ‘나와 함께라면 어떤 밤도 지루하지 않을 거야’ 라는 가사와 함께 눈부신 빈의 왈츠가 연주된다.

옥스 남작의 왈츠가 빈을 대표하는 왈츠였다면, 그 후 등장하는 마지막 3중창 장면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스타일을 대표하는 음악이자, 오페라 ‘장미의 기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다. 마르살린, 옥타비안, 조피 이렇게 3명의 가수가 서로의 감정을 동시에 토로한다. 마르살린은 자신의 젊음이 지나갔음을 깨닫고, 옥타비안을 놓아준다. 옥타비안은 조피와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서는데, 마르살린에게는 이 모든게 옥타비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다. 그렇게 작품은 감정적인 클라이맥스를 맞이한다. 마지막 3중창은 슈트라우스가 자신의 장례식 때도 연주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아꼈다.

마지막 장면은 오페라 3막 초반에 등장한 또다른 왈츠가 등장하며 작품의 분위기가 바뀐다. 덕분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만든 로맨틱 코미디 ‘장미의 기사’가 아름답게 마무리 된다.

덧붙여 오늘 연주될 프로그램들은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에스트라다(Andrés Orozco-Estrada)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프로그램들이다.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Hr-Sinfonieorchester) 유튜브에 등장하는 열정적인 모습의 에스트라다는 이미 친숙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은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유튜브 활동에 적극적인 단체기 때문이다. 이제 에스트라다는 베를리오즈와 스트라빈스키에서는 풍부한 색채감과, 강렬한 리듬을 선보일 것이고, 2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드라마틱하게 작품을 해석해낼 것이다.

글 | 허명현 (음악 칼럼니스트)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피에타리 잉키넨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며, 공연 외에도 방송프로그램 및 콩쿠르 사업, 지역과 연계한 음악제, 기업 후원의 공익연주회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2024년 8월에는 폴란드 쇼팽 협회와 체코 브르노 슈필베르크 페스티벌에 아시아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받아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KBS교향악단은 디지털 콘텐츠를 선도하며, 코로나 시대에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의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디지털 K-Hall’ 아카이브를 오픈하여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교향악단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하여 실버 버튼을 받은 후, 현재는 구독자 수가 18만 명을 넘어 아시아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이승환
단원	
제1바이올린	최병호 ^{부악장} 반선경 ^{수석} 유신혜 ^{부수석}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윤 오지은 유지인 이소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신예은 신지현
제2바이올린	권민지 ^{수석} 임정연 ^{부수석} 안지현 ^{부수석}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박서현 최여은 김지민 이유진
비올라	진덕 ^{수석} 한넬리 ^{부수석}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수석} 윤여훈 ^{부수석}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안예진
더블베이스	이창형 ^{수석} 김남균 ^{부수석} 안수현 ^{부수석}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강창대 곽민재
플루트	김태경 ^{부수석}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수석} 김종아 ^{부수석} 조성호
클라리넷	박한 양수현
바순	박준태 ^{수석} 고주환 ^{부수석}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남관모 ^{수석} 김주원 ^{부수석} 정용균 김승헌
트롬본	윤지언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수석}
타악기	Jason Yoder ^{수석} 장세나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직원수석

악장	김소영 ^{Bayerisches Staatsorchester 제1바이올린 단원}
플루트	윤혜리 ^{수석}
클라리넷	채재일 ^{수석}
호른	Sam Jacobs ^{수석}
트롬본	김성수 ^{수석}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팀장 손유리 차장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최난희 사원 허효정 인턴 전의범 황세빈 공연지원파트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정오준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강길호 차장 이한신 과장 이미라 PD 서영재 사원 차하영 장태형
경영관리팀	팀장 손대승 차장 유연철 유정의 박연선 사원 윤자윤

KBS교향악단 후원회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인 교향악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채로운 행사 참여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정가	기간	등급별 혜택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회 동반 (2인 항공 포함, 교통/숙박 제공)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위한)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 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2인 교통, 숙박 제공/연 1회)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 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환담 및 다과) - 후원의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후원인을 위한 특별연주회) - 교향악단 투어 (KBS연습실 리허설 참관/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티켓 20% 할인)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 (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 (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리허설 참관 초청 (Etude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명단 게재 (Etude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회 가입 문의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 Tel 02-6099-7407, 010-4932-3061
andy@kbssymphony.org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이건수 (주)동아일렉콤 회장	이사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상임이사	이승환 KBS교향악단 사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은 KBS 시청자센터장
			한경천 KBS 예능센터장
			김병진 KBS 라디오센터장

후원회 명단

Concerto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 김덕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앤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이영애 배우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최원석 비씨카드(주) 대표이사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명예회장 NH-Amundi자산운용	Nocturne	교보문고 국은주 김동진 금양식품(주) 대표 김영기 변호사 이종원 H&O 코리아 대표 이항일 (주)하어스엠 대표 정옥선 (주)세이프케미컬 대표 NH투자증권
Cantata	고종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현 삼성전자 상근고문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김효수 (주)효석 대표 문양호 (주)동영관광 대표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서봉준 (주)동림유화 대표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신한투자증권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승현 PHA 사장 한국산업은행	Prelude	곽동욱 아주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영선 KBS PD 김영철 배우 김용 김은영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대외협력 이사 김종운 김진오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희연 전)KBS교향악단 첼로 단원 노기용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박옥균 배홍기 PKF 서현회계법인 대표이사 양영은 KBS 앵커 오지연 변호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애포트너즈 대표 윤종호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윤혜원 전)KBS교향악단 오보에 단원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장희용 변호사 장희진 올리브클래스 대표 전병을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승환 변호사 정용실 정인채 (주)초록숲 대표 조명현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연구교수 조용상 가천대학교 교수



Life ON Sealy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선명해지는 가치가 있다
144년 당신을 지지해온
섀리 포스처피딕
Life ON Sealy

